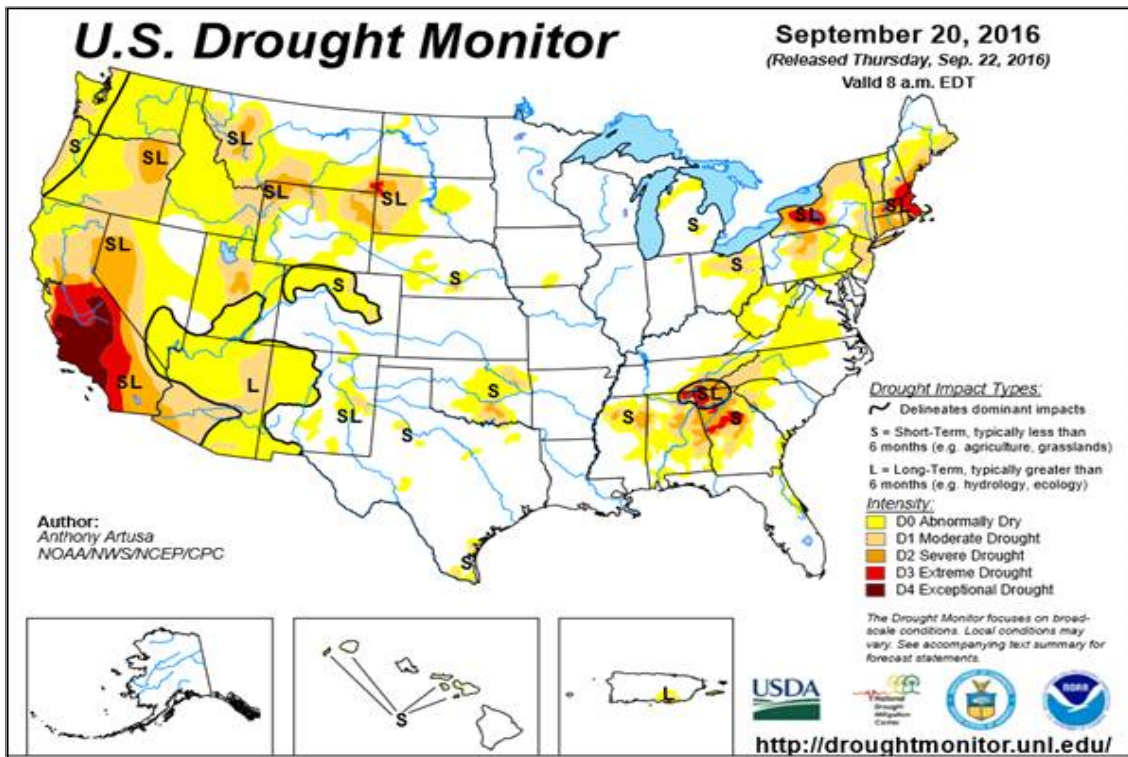


9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9)

□ 미국 기후 현황(9/18~9/24)

열대성 저기압 Jilia가 소멸하긴 했지만, 남아있던 구름들이 대서양 연안 중부와 남부 지역에 비를 내렸다. 버지니아 남동부와 노스 캐롤라이나 북동부에서는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밖의 동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에 그치면서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뭄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주 후반부로 가면서 저기압이 지나감에 따라 내륙 산간 서부지역과 북부 고원 평원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2인치 넘는 비가 내렸다. 이번 저기압은 허리케인 Paine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던 구름으로부터 수증기를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곳곳에 비를 내렸고, 이 덕분에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시시피강 상류지역에서는 9월 21일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가 시작되었고, 이후 아이오와 북동부, 미네소타 남동부 및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서도 4~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강이 범람했다. 뉴 멕시코 동부에서부터 다코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날이 이어졌고, 이후 주말으로 가면서는 차가운 저기압 전선이 북부 평원에서 자리하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갔다.



□ 농업 현황 요약(9/19~9/25)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어졌고, 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9°F 정도 높았다. 중서부와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5인치를 넘기도 했다. 그 밖의 남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 옥수수

9월 25일 기준, denting이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조금 앞서는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황숙기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73%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9%p 앞서는 수치이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황숙기에 이른 지역의 비율이 2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5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15%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 낮은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9월 25일 기준,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은 68%으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4%p 높은 수치이다.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한 주간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이 각각 3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확률은 10%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p 낮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낮은 수치이다. 응답자의 73%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1%p 높은 수준이다.

■ 면화

9월 25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벌어진 지역의 비율은 63%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낮은 수치이다. 현재까지의 수확률은 10%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및 직전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치이다. 루이지애나에서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7%p 증가했고, 알칸사스와 미시시피에서도 각각 12%p, 11%p씩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 쌀

9월 25일 기준, 전체 수확률은 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p 높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4%p 높은 수치이다. 텍사스에서는 수확작업이 종료되었고, 루이지애나에서도 수확작업이 거의 끝이 났다.



□ 세계 기후 현황(9/18~9/24)

■ 유럽: 북부와 서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농작업이 재개되었다. 프랑스에서부터 독일 북부 및 폴란드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에서는 지난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 수준에 그치는 등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도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밀과 유채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독일 남부 및 발칸반도 북부에서는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다뉴브강 저지대 일대에서도 20~65mm 내외의 비가 내려, 여름 동안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유럽 전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2~5°C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러시아 서부 및 남부에서도 10~8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러시아 남부 지구의 북쪽 인근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불안정한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30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동아시아: 태풍 Malakas의 영향으로 대만에서는 주 초반에 비가 내렸고, 이후 태풍이 일본으로 옮겨가면서 주 후반에는 일본 남부 일대에 비가 내렸다. 이번 태풍은 중심부 최고 풍속이 115노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대만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 대만 남동부 해안지역에서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본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남한에서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또 다른 태풍 Megi가 주 후반 대만 동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 호주: 밀 재배지 전역에서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중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는 강이 범람하기도 했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이번 비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중부와 남부에서 내린 비의 양은 25~50mm 내외였으며,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도 5~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 호주 남부 및 빅토리아주 북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낮았고, 동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La Pampa, Buenos Aires 등 남부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초중반에 머물렀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밤 동안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 두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으며, 북부의 Salta, Formosa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겨울작물의 생육상황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9%로 거의 끝이 났다.

■ 브라질: 중부 일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브라질 최대의 대두 생산지인

Mato Grosso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Tocantins로 확대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보다 남부지역에서는 1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비의 양이 적어서 밀의 수확작업을 지연시키지는 않았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